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제17대 회장 후보자 소견서

후보자 : 서희진

존경하는 회원 및 임원 여러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제17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건국대학교 서희진입니다.

우리 한국스포츠사회학회는 1990년 창립 이래 임번장 초대 회장님을 필두로 여러 임원님과 회원님들의 노력으로 스포츠사회학의 학문적 기틀을 공고히 하였으며, 무엇보다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기에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즉, 학문적 쓸모를 높임으로써 체육학의 중심 학문으로 발돋움시켜 왔습니다. 더불어 각종 국내·외 학회, 스포츠 관계 기관 및 정책 분야에서 한국스포츠사회학회가 학문적으로 이바지한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학회의 긍지입니다.

최근 COVID-19 팬데믹 사태가 점차 가라앉으면서 이제 엔데믹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변화에 대응하는 정도는 개인 차원에서 국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사뭇 다르다는 점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스포츠사회학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잘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볼 시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회에 입회한 이래, 학회 선임간사(사무국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위원장, 부회장직 등을 수행하면서 학회에 꾸준히 봉사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학회 회원들과 학문적 동지애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인연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사회학의 위기가 화두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특히, 우리 학회는 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중견학

회이지만 불행히도 학문 세대 간 선순환 구조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학회 운영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수한 기성학자들의 활발한 활동과 학문후속세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제17대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장에 입후보하면서 ‘**사회학적 통찰력으로 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하는 학문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학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원에게 먼저 다가가는 학회

- 학회 회원간 교류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매월 크게 작은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의 학회 참여 동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학회의 지속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규 회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회원간 소통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학회장이 지역별로 직접 방문하여 학회 발전을 위한 회원의 바람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학문적 동반자로서 학회 회원간 친목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각종 이벤트에 회원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둘째, 높은 학술 역량으로 스포츠를 조명하는 학회

- 각종 스포츠 현안 및 신규 학술 주제 발굴 등을 위한 (가칭)학술위원회를 신설하고, 발굴 주제에 기반한 연간 학술 활동 계획을 촘촘히 수립하겠습니다.
- 정기학술대회를 주제별 세션으로 세분화하고 회원 다수가 참여하는 내실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사회학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성을 조망하는 학술대회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의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각종 포상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가칭) 스포츠사회학 포럼을 신설하여 스포츠에서의 현실 문제, 융·복합적 주제, 새로운 연구법 및 다양한 이론 학습 등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셋째, 회원의 자부심을 높이는 영향력 있는 학회

- 학회지 투고 및 게재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고, 'Special Issue' 도입을 통한 학회지 발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체육학 내 타 학회와의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한·일 학술교류 협정 복구 등 국제학술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역량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해외 우수 도서 번역본 출판, 뉴스레터 발간 시 해외 우수논문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지역별, 학교별 회원 동정 수시 업데이트 등 다양한 회원 서비스를 발굴, 제공할 예정입니다.

넷째, 스포츠 이슈에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학회

- 스포츠 현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 청취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스포츠 이슈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학회가 되기 위해 스포츠 언론 등과 유기적 관계를 확보하고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정책에 대한 학회 차원의 비판과 대안 제공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사회학의 쓸모를 제고 하겠습니다.
- 학회의 기능 및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후원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